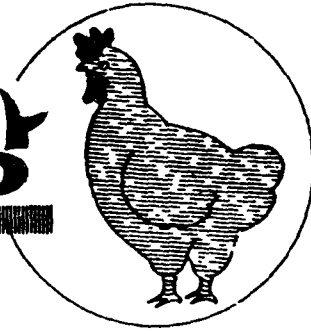


육계시장



단위 : 원 / kg

월일	지역 구분	서울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하이	쌔미	노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79년	5월25	605	570	320	600	670	700	670	640	
	29	615	570	320	600	650	700	650	640	
	6월	1	610	570	330	600	600	620	620	640
		5	605	580	330	640	520	600	620	600
	8	610	580	350	600	550	600	620	620	
	12	615	580	370	630	600	600	650	650	
	15	635	590	360	600	660	600	700	650	
	19	640	590	350	680	680	620	700	650	
	22	640	590	350	700	680	640	700	650	
78년	5월	578	597	425	655	601	613	663	624	
	6월	586	593	373	600	556	598	660	627	
	7월	698	675	380	691	709	685	726	715	
	8월	731	675	461	773	790	722	755	700	
	9월	668	644	526	743	786	685	736	704	
	10월	654	687	476	676	744	635	690	672	
	11월	830	835	487	862	897	810	817	833	
	12월	634	630	475	683	705	633	583	656	
	79년	1월	523	516	450	602	654	588	633	586
		2월	444	418	379	509	534	485	549	477
		3월	486	426	340	544	574	507	494	511
		4월	484	430	344	560	581	550	569	523
5월		616	566	338	666	671	676	678	650	

—생산조절과 소비촉진으로 활로를 찾자—

1월부터 4월까지 근년에 없었던 불황의 깊숙한 늪에서 허덕이던 육계업계에 흑자가 말했듯이 5월초의 연휴는 문자 그대로 기사희생의 대전환기를 마련하여 주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예년의 가격곡선과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반 콤파살부로 일러 사육업자들과는 달리 부화업계는 대폭 증가입식된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을 다 입란하지 못하고 있고 육계업자들이 입추수수 조절로 인하여 부화된 초생추를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거래하는 등 계속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그야말로 금년도가 지나면 우리나라 양계업계가 재편되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선진 각국에서도 그렇듯이 부족되는 육류자원을 단시간에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육계 이외에는 없음을 생각할 때에 發展의 여지는 희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발전의 여지란 가능성만을 의미할 뿐이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데는 체계적이고 균형이 잡힌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까지 간과해 왔던 소비자교육에 업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 소비의 창조업이 근대산업을 발전하지 못함을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6월 23일 현재 서울의 육계가격은 650원선인데 이것을 예년의 수준과 비슷한 것인데 4월중에 육계입추를 상당히 감소시켰기 때문에 요즈음의 소비위축 속에서도 이러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생산조절이 제일 효과적인 타개책임을 일깨워준다. 6월하순부터 시작되는 장마가 7월 중순이면 끝날것이고 중복 이후는 바캉스와 함께 가격이 회복되어 700~750원선을 유지하리라 생각된다

전용종(하이) 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6~79년) (단위: 원/kg)

